국제지도학회 제16회 총회 및 제27회 학술대회 참석 보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조대헌(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 이상일(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 국제지도학회 개요

1959년 창립된 국제지도학회(International Cartographic Association)는 2009년 50주년을 지나 2016년 현재 58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지도학회 총회(general assembly)는 1961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개최된 후 4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는데, 2011년 제15회 프랑스 파리 총회에 이어 2015년에는 브라질에서 제16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학술대회(conference)는 2년 마다 개최되는데, 2013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제26회 대회가 개최되었고, 2015년에는 제27회 대회가 브라질에서 제16회 총회와 함께 개최되었다. 제28회 학술대회는 2017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지도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연혁은 국제지도학회 홈페이지(icaci.org)와 그 간에 있었던 국제지도학회 참석 보고(민태정, 2007; 김영훈, 2009)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국제지도학회의 회원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국가 회원, national membership)가 되지만, 각 국가에 소속된 개별 기관이나 학회는 원하는 경우 특별 회원(affiliate membership)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국가 회원은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학회 명의로 가입하는데, 2016년 현재 국가 회원으로는 약 70여개가 등록되어 있다(그림 1). 우리나라는 1984년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 명의로 가입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한국지도학회가 대표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민태정, 2007).

그림 1. 국제지도학회 가입국 현황(2016)
자료: http://icaci.org/national-members/

국제지도학회의 회장을 포함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4년 임기로 각 회원국의 대표가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서 선출된다. 1961–1964년 제1대 집행위원회(회장은 스위스 Eduard Imhof 교수)를 시작으로 2015년 8월 현재 제14대 집행위원회(임기 2011–2015년)가 선출되어 국제지도학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2015년 총회 및 학술대회까지는 제14대 집행위원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었으며, 2015년 총회를 통해 다음 임기(2015–2019년)의 집행부가 선출되었다. 그 동안 국제지도학회의 주축 회원국이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었던 관계로 회장 역시 유럽 및 북미 국가들에서 선출되어 왔다. 아시아권의 회원국들은 부회장단에 포함되어 오고 있는데, 대체로 일본과 중국이 번갈아 그 역할을 맡아왔다.

2. 제16회 총회 및 제27회 학술대회 요약

1) 개요

제16회 총회 및 제27회 학술대회는 2015년 8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되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해당하는데, 경위도 상으로는 서경 43도 10분, 남위 22도 50분 경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2). 경도 상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12시간으로 낮밤이 서로 정확히 엇갈린다. 위도 상으로는 남회귀선 바로 위에 위치함으로써 열대기후의 특성이 나타나 학술대회가 개최된 8월은 겨울임에도 더운 날씨를 보였다. 16세기 초 포르투갈인들이 바다인 만을 강으로 오인하여 '1월의 강'이라 이름 붙인 리우데자네이루는 1960년대까지 브라질의 수도로 번성해왔으며 2013년 기준 인구는 630만명으로 상파울루에 이어 제2의 도시에 해당한다(지리교육연구회 지평, 2005; 대한지리학회, 세계지명사전 중남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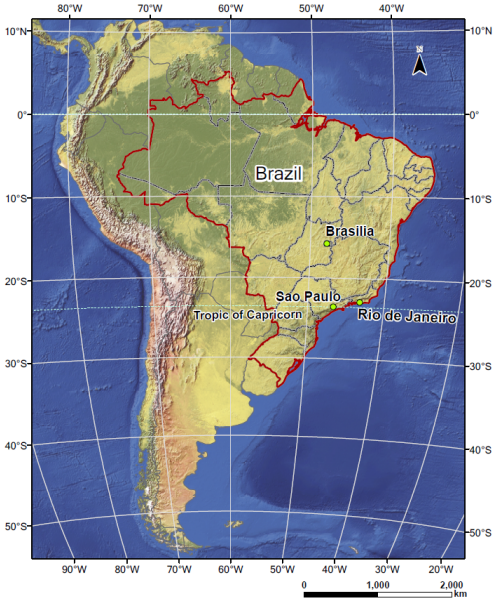

그림 2. 리우데자네이루의 위치

자료: Natural Earth Data

2015년 국제지도학회의 모든 행사는 리우데자네이루의 도심부에 위치한 SulAmérica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일정은 브라질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15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5일간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총회는 8월 23일과 8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학술대회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집중 개최되었다. "세상을 연결하는 지도(Maps Connecting the World)"라는 주제를 내건 2015년 국제지도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는 국제지도학회 및 브라질지도학회(Brazilian Society of Cartography)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대회의 조직위원회(Local Organizing Committee)는 브라질의 Paulo Márcio Leal de Menezes 교수가 이끌었다. 2015년 국제지도학회의 행사는 총회, 학술발표(구두 및 포스터), 학술위원회(commission) 활동 및 전시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지도학회, 국토지리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그림 4).[1)]

그림 3. 2015년 국제지도학회 학술대회 홈페이지
출처: http://www.icc2015.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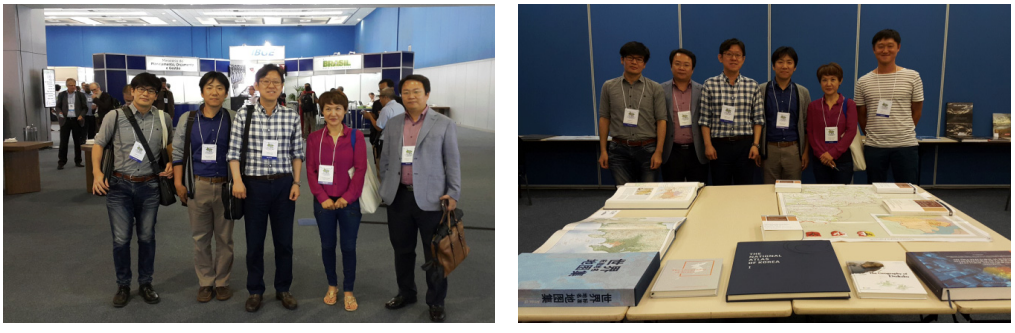

그림 4. 2015년 국제지도학회 학술대회 한국 참가단

1) 한국지도학회 회장(이상일, 서울대학교) 및 학술차장(조대헌,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영옥 교수 및 강애띠 박사, 동북아역사재단 이상균 박사, 국토지리정보원 이상호 주무관 및 류준하 주무관 등이 참석하였다.

2) 제16회 총회

제16회 총회는 8월 23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다(그림 5). 총회에는 각국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지도학회 회장(이상일) 및 학술차장(조대헌)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총회에서는 국제지도학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의결을 행하는데, 회장 선출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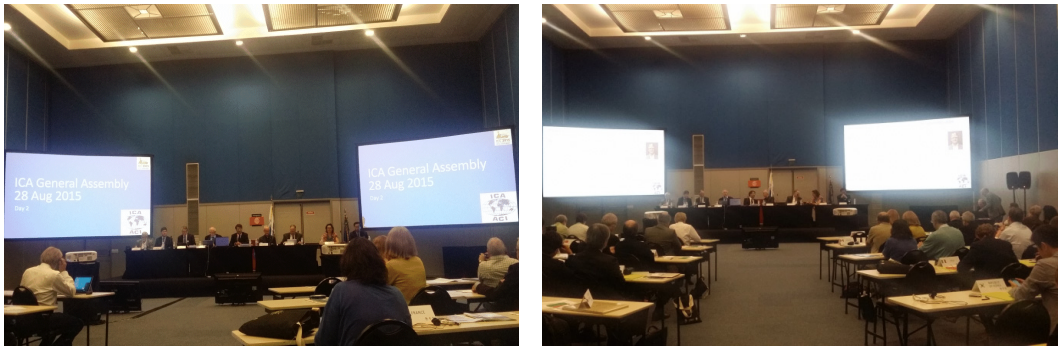

그림 5. 국제지도학회 제16회 총회

8월 23일 진행된 총회 1부에서는 투표권 및 회원자격 검토, 예산안 검토, 규약 개정, 학술위원회 보고, 차기 집행위원회 소개 및 2019년 제17회 총회 및 제29회 학술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제안발표가 진행되었다. 우선 투표권 및 회원자격 검토에서는 회비 미납된 12개국 국가에 대해 투표권 상실이 결정되었다. 또한 회비 미납과 함께 10년 이상 학회에 참석하지 않은 카메룬 등의 10개국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박탈을 결정하였다. 반면에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에 대해서는 신규 회원국 가입이 승인되었다. 이어 2015-2019년 예산안에 대한 짧은 토론이 있었으며, 몇 가지 항목에 대한 규약 개정이 이루어졌다. 학술위원회의 의장의 임기(최대 2회기 연속), 회비 미납국에 대한 회원 자격(3년 연속 회비 미납국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총회에 회원자격 박탈을 건의), 회원국에 대한 서비스 확충 등이 논의, 의결되었다. 다음으로 30개 학술위원회의 임기 내 활동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차기 새 집행위원회의 후보자들이 소개되었다. 끝으로 2019년 총회 및 학술대회 희망 개최국(이탈리아, 일본)의 제안 발표가 진행되었다.

8월 28일 진행된 총회 2부에서는 총회 1부에서 다루어졌으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었다. 우선 각 회원국의 투표권 확인을 통해 모두 40개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원국 자격 검토에서는 루마니아(Romania)에 대한 신규 회원국 가입을 추가로 승인하였다. 이어 2015-2019년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규모는 283,000유로(한화 기준 약 3억 6천만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투표를 통해 차기 집행위원회 선출이 이루어졌다. 회장으로는 네덜란드의 Menno-Jan Kraak,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으로는 스위스의 Sara Fabrikant, 부회장단으로는 영국의 David Forrest, 중국의 Yaolin Liu, 스페인의 Pilar Sanchez-Ortiz, 독일의 Monika Sester, 미국의 Lynn Usery, 체코의 Vít Voženílol 선출되었다. 27개 학술위원회의 의장 선출도 투표로 의결되었다. 표 1은 2015-2019년 임기 동안의 위원회와 의장을 보여주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각기 하나의 위원회를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11-2015 임기와 비교해보면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s), 공간데이터인프라 및 표준(SDI and Standards)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었다. 총회 2부의 마지막 일정은 2019년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지 결정이었다. 이탈리아와 일본이 경쟁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일본(도쿄)이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표 1. 2015-2019년 회기 학술위원회 및 의장

Commission	Chair
Art and cartography	Sébastien Caquard (Canada)
Atlas	René Sieber (Switzerland)
Topographic mapping	Alexander Kent (UK)
Maps and graphics for blind and partially-sighted people	Alejandra Coll (Chile)
Mountain cartography	Dušan Petrovič (Slovenia)
Cartography and children	Carla Sena (Brazil)
Maps and the internet	Rex Cammack (USA)
Ubiquitous cartography	Masatoshi Arikawa (Japan)
Planetary cartography	Henrik Hargitai (Hungary)
Cartography in early warning and crises management	Milan Konečny (Czech Republic)
Map design	Ken Field (UK)
Education and training	David Fairbairn (UK)
Generalisation and multiple representations	Dirk Burghardt (Germany)
History of cartography	Imre Josef Demhardt (USA)
Sensor-driven mapping	Jonathan Li (Canada)
Location based services	Haosheng Huang (China)
Use, User and Usability Issues	Kristien Ooms (Belgium)
Geospatial Analysis and Modeling	Xiaobai Angela Yao (USA)
Cartographic Heritage into the Digital	Evangelos Livieratos (Greece)
Map Production and Geoinformation Management	Peter Schmitz (South Africa)
Map projections	Miljenko Lapaine (Croatia)
SDI and Standards	Serena Coetzee (South Africa)
GI for sustainability	Vladimir Tikunov (Russia)
Open source geospatial technologies	Silvana Comboim (Brazil)
Toponymy	Paulo Menezes (Brazil)
Visual Analytics	Anthony Robinson (USA)
Cognitive Issues in Geographic Information Visualization	Amy Griffin (Australia)

3) 학술발표

국제지도학회의 학술발표는 크게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로 구분된다. 2015년 학술대회에서는 전체 38개 주제(표 2)에 대해 모두 73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가운데 170여편은 포스터 발표에 해당한다. 논문 발표의 전체 목록은 국제지도학회 2015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www.icc2015.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지도학의 핵심 분야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주제도를 제외한다면 데이터의 취득 및 구축, 분석에 대한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역사지리(고지도)나 교육, 지도의 활용, 심상지도 등에 대한 논문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두 발표에서는 "Cartographic Heritage"가 가장 많은 6개 세션을 차지하였고, 지오비주얼라이제이션, 지리공간분석, 교육, 지도 인식 및 인지, 지도 이용 등 또한 각기 4세션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2. 국제지도학회 제27회 학술대회 논문 발표 주제 및 발표 건수

No.	Topics	Papers
1	Semiotics, map perception, cognition and knowledge; Mental Maps and Semiotics, map perception, cognition and knowledge; Mental Maps and Cartograms	35
2	Geovisualization,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Animated and Dynamic Cartography	27
3	Generalization and Multi-scale representation	23
4	Geoprocessing, Data modeling and Geospatial analysis; Geographical Data Base	52
5	SDI, Standards, Ontologies, Data Integration and quality; Metadata, Open Source GIS	40
6	Web Cartography and Map Services, GIS Cloud computing	26
7	Location Based Services and Ubiquitous Cartography; Geomarketing	9
8	Collaborative mapping,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Social Cartography; Crowdsourcing	23
9	Thematic Cartography	44
10	Art, Culture and Cartography; Map design	28
11	Cartographic Theory and Geoinformation Science	7
12	Map projections	6
13	Map use, users and usability	31
14	Cartograph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
15	Early Warnings, Environmental Risks and Disasters mapping	29
16	Very large scale and Engineering Cartography	1
17	Remote Sensing applied to Cartography; Recognition and map update processes	48
18	Digital Technologies, Cartographic Heritage and Cartography applied to historical and archeological	36
19	History of Cartography and Historical Cartography	33
20	National, Global and Regional atlases	13
21	Cartography and toponymy, general and derivate aspects	14
22	Education and Training in Cartography and Geotechnologies	33
23	Cartography and Children	20
24	Mapping and Spatial awareness for disabled people	15
25	Geointelligence; Military mapping; Crime maps	7
26	Topographical Mapping and Mountain Cartography	15
27	Hydrographic mapping	9
28	Aeronautical mapping; Planetary Cartography	10
29	Rural cadaster mapping and surveying; Urban cadaster, Planning and city management	22
30	Soil Mapping and Agricultural cartographic applications	4
31	3D Cartography; 4D Cartography and Data Bases	16
32	Geological and Geotechnical mapping; Oil exploration and cartographic applications	5
33	Cartography for Amazon Basin	2
34	Intellectual Property; Geographical/cartographic delimit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2
35	Large events´ Cartography and public safety	1
36	Web/cloud based mapping (ICA/ISPRS joined session)	2
37	Geodesign	6
38	Others	22
Total		735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학술대회부터 논문 발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1편의 구두 발표와 2편의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였다(표 3, 그림 6). 구두 발표로는 이상일 · 조대헌이 대동여지도의 평면정확도에 대한 분석에 대해 발표하였다. 포스터 발표로는 강애띠 · 강영옥이 트윗 데이터의 지도화에 대해, 이상균이 세계지도 속에 표현된 우리나라 동해안의 섬(울릉도, 독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표 3. 한국 참가단의 학술 발표 현황

유형	발표자	제목
구두 발표	이상일 · 조대헌	Exploring the Planimetric Accuracy of a Korean Historical Map, Daedongyeojido('The Great Map of Korea')
포스터 발표	강애띠 · 강영옥	Mapping of the stress expressions which are extracted from Tweet data
구두 발표	이상균	History of Making the World Map and Discovery of the Far East: Focusing on the islands in the sea east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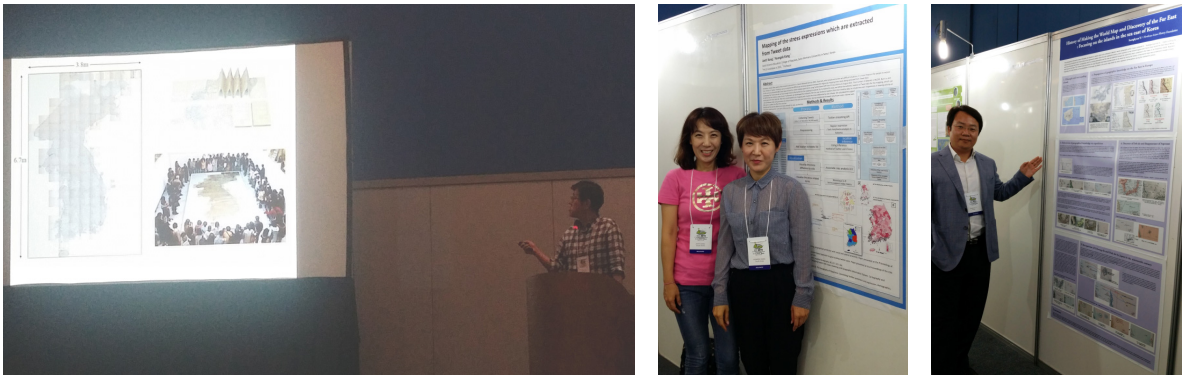

그림 6. 한국 참가단의 학술 발표 모습

이 외에도 학술발표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였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도 제작과 관련하여 3편의 논문 발표 신청이 있었다. 오충원 · 박재국 · 최진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지도의 디자인에 대해(A Study on Tactile map design for blind people in Korea), 김영훈 · 오충원 · 안재성은 촉각지도의 제작 과정 및 디자인에 대해(Generation and Designing of Tactile Maps in Korea), 정재준 · 강영옥 · 신휴석은 우리나라 및 세계의 색각장애자 지도에 대해(Korea and world maps for people with color vision deficiency) 연구하였다. 이 연구들의 내용은 국제지도학회 2015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학술위원회(commissions)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5–2019년 회기 동안 활동할 학술위원회는 모두 27개에 해당한다(표 1). 지도학의 역사나 지도 투영법, 지도 디자인, 지도 표현, 지도 일반화와 재현, 인지, 지도 제작, 아틀라스 제작, 지도 활용 등 전통적인 지도학의 영역과 함께 특정 분야에 초점을 둔 위원회들이 포함되었다. 산지 및 지형, 고지도와 같은 지도학적 유산의 디지털화, 어린이의 지도 사용, 재난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 행성 지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도 등의 이슈가 주목을 받았다. 또한 최신 기술 및 분석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인터넷, 오픈소스 기술, 유비쿼터스 매핑, 센서 기반 지도화, 위치기반서비스, 시각적 분석, 공간

분석 및 모델링 등의 주제가 포함되었다.

국제지도학회의 유치 등 우리나라가 국제지도학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술발표는 물론 학술위원회 활동 또한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대회에서 우리나라 참가단은 그러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이상일 현 한국지도학회 회장은 학술 발표를 통해 Cartographic Heritage into the Digital 위원회의 의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강영옥 전임 회장은 Visual Analytics 위원회의 미팅에 참가하여 활동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강영옥 전임 회장의 위원회 활동 노력은 Visual Analytics 위원회 의장(펜실베니아 주립대학 Anthony C. Robinson 교수)의 한국 방문 시 초청 강연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지도학을 국제지도학과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5년 9월 16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강연은 "Maps, MOOCs, and Understanding the Geography of Learner Engagement"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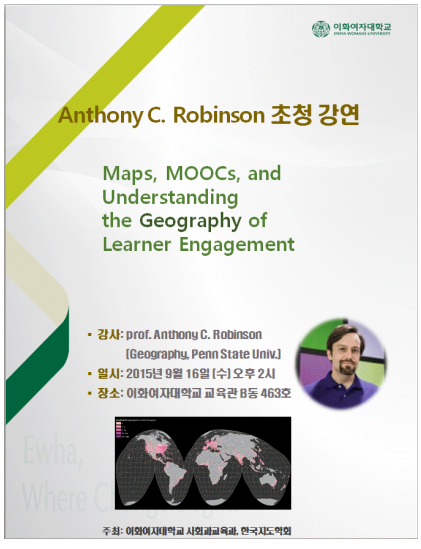

그림 7. 국제지도학회 Visual Analytics 위원회 의장의 한국 초청 강연 포스터

5) 지도 전시회

국제지도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매번 지도 전시회를 함께 해오고 있다. 2015년 전시회에서는 Historical Cartography Exhibition, International Cartographic Exhibition, Technical and Commercial Exhibition, Barbara Petchenick Competition(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38개국 189점 출품) 등이 진행되었다(그림 8, 그림 10). 우리나라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International Cartographic Exhibition에 참가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두 30여개 국가 및 기관이 참가하였다(전체 약 400여점 출품). 우리나라의 지도 전시 목록은 표 4와 같다. 이 전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온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동해 및 독도가 올바르게 표기된 국제지도를 배포하였으며, 전시 후 전시 자료를 IBGE(브라질 지리원) 및 국제지도학회에 기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영토 및 지명, 지도제작 기술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그림 9). 한편 이 전시 행사에서는 종이지도, 디지털지도, 아틀라스 등에 대한 경진대회가 있었으며,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우승을 차지하였다(세부 내역은 홈페이지 http://icaci.org/map-awards 참조).

그림 8. 지도 전시회 모습

표 4.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전시 목록

전시 목록	수 량	비 고
접이식 대한민국 전도(영어)	50부	배포
국제지도, 대한민국 전도, 주변도(영어, 포르투갈어)	1부	전시
Geography of Korea, Geography of Dokdo	1부	전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수지도	1부	전시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점자안내책	1부	전시
영문 국가지도집(National Atlas)	1부	전시

그림 9.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전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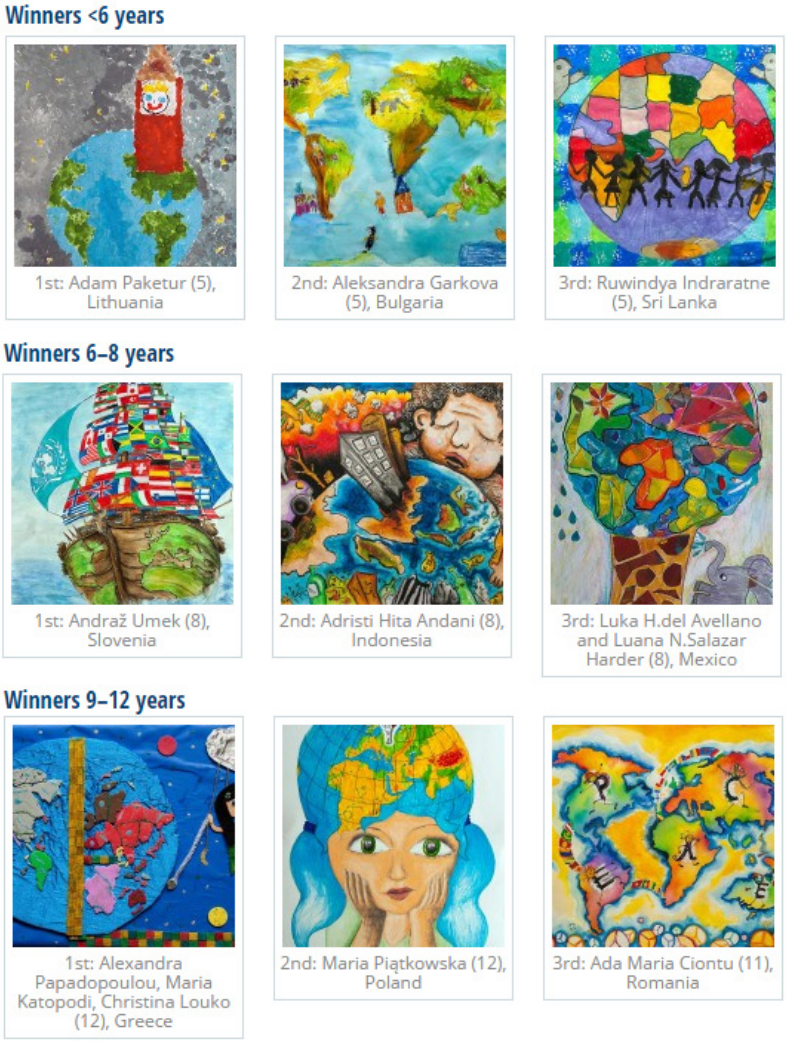

그림 10.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우승작

출처: http://icaciorg/winners-of-the-barbara-petchenik-competition-2015.

3. 맺는 말

국제지도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는 전 세계의 연구자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도 및 지도학의 발전을 살펴보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의 장이 된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15년 대회에서는 세계 40개국에서 대표단이 참석하여 차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는 등 주요 의제를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학술대회를 통해 38개 주제에 대해 73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400여편의 지도가 전시되었고, 27개 학술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다양한 지도 제작 및 시각화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취득 및 구축과 분석에 대한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주제도 및 시각화, 역사지리(고지도), 교육 및 지도 활용, 지도 인식 및 인지 등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2015년 대회는 그 전 유럽에서 개최된 대회나 같은 남아메리카의 칠레에서 개최된 2009년 대회보다 그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지도학회의 중심지로서의 명성과 지리적 이점을 가진 유럽 대회들에 비해 더 나은 조건은 아니었으나 비슷한 조건의 칠레 대회보다 논문이나 전시 지도 출품작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 접근성이 그리 좋지 못한 지역에서 6년 만에 다시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이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은 유럽과 북미를 제외하고 국제지도학회를 유치하려는 여타의 국가들에게는 그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것처럼 이번 2015년 대회는 남미 대륙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대회로, 2000년 이후 그 동안 주목 받지 못한 지역에서 국제지도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경향을 계속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규모나 자원이 서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에 미치진 못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국제 학술대회를 치를 수 있음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대회에서는 비단 지도와 관련된 학술적 발표와 토론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집행위원회나 학술위원회를 통해서 국제지도학회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지명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두고 국가 간에, 기관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지도학회를 중심으로 학술발표나 학술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이나 전문 업체 등과의 협조로 지도 및 기술 전시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학술대회 유치와 같은 성과는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축적될 때 가능할 것인데, 2015년 대회는 그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아시아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1968년 인도, 1980년 일본, 2001년 중국 세 차례였고, 2019년에는 다시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현재까지의 추세라면 아시아권에서 학술대회가 다시 개최되기 위해서는 약 20년을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남미의 경우에서처럼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일본이나 중국의 행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림 11).

그림 11. 일본(좌)과 중국(우)의 학술대회 부스 운영

2019년 학술대회를 유치한 일본은 이번 브라질 대회에서 독립 부스를 운영하였고, 1개 학술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2) 2009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는 1600여편의 논문 발표와 500-600점의 지도가전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훈, 2009).

선출되진 않았으나 차기 부회장단 후보를 배출하였다. 중국은 여러 기관의 공조를 통해 큰 규모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등 학술대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나라에 해당한다. 학술대회장 중앙에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운영하면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1개 학술위원회를 이끌고 있으며, 또한 차기 집행위원회의 부회장을 배출하였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2015년 브라질 대회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지도학회는 물론 외교부, 국토지리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 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국제지도학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상호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덧붙이자면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학회 보다 강한 추진력과 자원을 보유한 국가 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국 대표단으로 한국지도학회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공조하는 방안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영훈, 2009, “제 24회 국제지도학회 학술대회 참석보고: 칠레 산티아고,” 한국지도학회지, 9(2), 107–115.

대한지리학회(편),「세계지명사전 중남미편: 인문지명」, 푸른길, http://termsnavercom/listnhn?cid=43965&categoryId=43965.

민태정, 2007, “제14차 국제지도학회 총회 및 제23차 학술발표회 참석보고: 러시아 모스크바(2007년 8월 4일– 10일),” 한국지도학회지, 7(2), 69–74.

지리교육연구회 지평(편), 2005,「지리교사들 남미와 만나다」, 푸른길.

국제지도학회 제16회 총회 및 27회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www.icc2015.org.

국제지도학회 홈페이지, http://icaci.org.